

| 이슈페이퍼 2022-10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대응과제

유해미

1. 배경 및 문제점
 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과 지원요구
 3. 정책 제언
 4. 기대효과
- 참고문헌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대응과제*

유해미 선임연구위원

◆◆ 요약 ◆◆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필요한 돌봄시간보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이고, 영유아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2%로 조사되어 이들 가구의 돌봄 공백이 우려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주요 대상은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 후과정의 접근성 보장에도 불구하고 자녀돌봄의 공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가구이며, 이외에도 자녀가 아픈 경우, 야간 및 주말에 근로하는 맞벌이 가구 등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를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보 접근성 제고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인계 등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원화가 요구되며, 관할부처는 물론, 시·도 및 시·군·구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협업체계 구축이 요구됨.

1

배경 및 문제점

-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 유치원에서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서비스의 공급만으로 돌봄 공백을 온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 ◆ 어린이집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이른 하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야기되지 않도록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여 16시까지 운영되는 기본보육 이후에 19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을 지원하고 있음.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기본과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 방안 연구(유해미·박진아·엄지원, 2021)」를 기반으로 작성됨.

- ◆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 이후에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유아교육법」 제12조, 제13조), 세부 운영기준 등은 시·도교육청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정부에서는 촘촘한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제시함.
 - ◆ 아이돌봄서비스는 제도 도입 당시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즉,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양육 공백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가, 이후 영아자녀의 가정내보육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등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함(여성가족부, 2022: 8).
 - ◆ 특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시설이용 아동이 수족구병 등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등원하기 힘든 경우에 긴급하게 지원되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지원이 증가¹⁾함(여성가족부, 2019. 10. 1).
- 이 같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를 파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만함.

1) 2019년 1월 기준으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건수가 28,994건으로 전년 동기 14,209건 대비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음(여성가족부, 2019. 10. 1).

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과 지원요구²⁾

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및 수요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가 주중에 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6%이고, 맞벌이 가구의 해당 비율은 35.5%로 상대적으로 높음.
- ◆ 주중에 ‘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용기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가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 공히 31.1%로 조사되어 해당 서비스의 공급만으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 ◆ 주말에 ‘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1%로 주중보다 높게 나타나서 주말의 돌봄 공백이 더욱 우려됨.

〈표 1〉 주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단위: %(명)

구분	주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계(수)	
	부족하게 이용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	더 길게 이용		
전체	30.6	66.3	3.1	100.0	(1,6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5.5	60.7	3.8	100.0	(1,092)
홀벌이 가구	20.4	77.8	1.8	100.0	(505)
모두 근로 안함	23.1	76.9	0.0	100.0	(26)
$\chi^2(df)$	47.191(4)***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31.1	63.4	5.4	100.0	(514)
연장보육 미이용	28.8	69.2	2.0	100.0	(607)
방과후과정 이용	31.1	67.5	1.3	100.0	(302)

2) 이하 내용은 2021년에 수행한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 방안 연구”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며, 어린이집 이용가구 1,121사례와 유치원 이용가구 502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구분	주중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계(수)
	부족하게 이용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	더 길게 이용	
방과후과정 미이용	34.0	63.0	3.0	100.0 (200)
$\chi^2(df)$	18.031(6)**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134~135 재구성.

** $p < .01$, *** $p < .001$.

〈표 2〉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단위: %(명)

구분	주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의 충분성			계(수)
	부족하게 이용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	더 길게 이용	
전체	41.1	54.8	4.2	100.0 (168)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42.1	54.3	3.6	100.0 (140)
홀벌이 가구	35.7	57.1	7.1	100.0 (28)
모두 근로 안함	-	-	-	- -
$\chi^2(df)$	0.984(2)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43.0	53.8	3.2	100.0 (93)
연장보육 미이용	37.8	59.5	2.7	100.0 (37)
방과후과정 이용	40.0	60.0	0.0	100.0 (30)
방과후과정 미이용	37.5	25.0	37.5	100.0 (8)
$\chi^2(df)$	24.794(6)***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138~139 재구성.

*** $p < .001$.

- 필요한 시간보다 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이유로는 1순위와 2순위 응답률을 합하여 ‘기관의 운영시간이 퇴근시각이 맞지 않아서’ 54.7%, ‘기관에 아이가 홀로 남겨지는 것이 염려되어서’ 50.4%, ‘장기간 보육이 발달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37.5%, ‘기관의 운영시간이 출근시각과 맞지 않아서’ 33.6% 순으로 조사됨.

- ◆ 단, ‘장시간보육에 대한 우려’는 이용기관의 운영시간이 보육 수요에 충족한다고 해도 이른 시각의 하원이 지속될 것이므로 이들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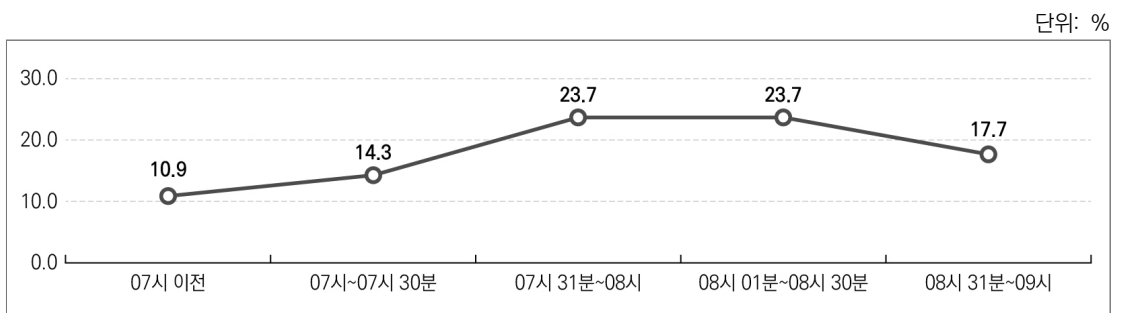
〈표 3〉 주중 수요 보다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이유

구분	단위: %(명)	
	1순위	1+2순위
기관 운영시간이 퇴근 시각과 맞지 않아서	30.4	54.7
기관 운영시간이 출근 시각과 맞지 않아서	26.9	33.6
기관을 장시간 이용하는 것이 아이 발달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19.0	37.5
기관에 아이가 홀로 남겨질까봐 우려되어서	17.6	50.4
어린이집 연장보육이 신뢰되지 않아서	1.0	10.7
유치원 방과후과정이 신뢰되지 않아서	1.4	3.4
기관이 주말(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아서	3.0	8.1
기타	0.8	1.6
계(수)	100.0(506)	(506)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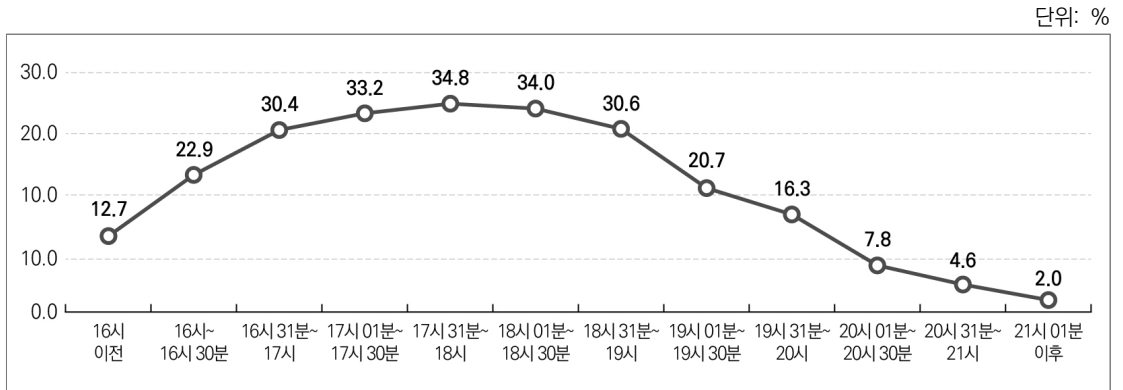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주중에 추가보육이 필요한 시간대는 오전 7시 30분 이전이 25.2%, 오후 7시 30분 이후가 30.7%로 나타나 해당 시간대의 돌봄 공백이 우려됨.

〈그림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중복응답): 오전시간대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6.

[그림 2]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추가보육 필요시간대(중복응답): 오후시간대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46.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 중에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2%로 절반이 넘고, 영아자녀와 맞벌이 가구의 해당 비율은 각각 62.4%와 65.7%로 더 높게 나타남.
- ◆ 서비스 이용기관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가구에서 돌봄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각각 71.2%와 64.6%로 높게 나타남.

〈표 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여부

단위: %(명)

구분	자녀돌봄 공백 경험 여부		계(수)
	있음	없음	
전체	59.2	40.8	100.0 (1,623)
자녀연령2			
영아	62.4	37.6	100.0 (625)
유아	57.2	42.8	100.0 (998)
$\chi^2(df)$	4.279(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65.7	34.3	100.0 (1,092)
홀벌이 가구	45.9	54.1	100.0 (505)
모두 근로 안함	46.2	53.8	100.0 (26)
$\chi^2(df)$	57.459(2)***		

구분	자녀돌봄 공백 경험 여부		계(수)
	있음	없음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71.2	28.8	100.0 (514)
연장보육 미이용	50.1	49.9	100.0 (607)
방과후과정 이용	64.6	35.4	100.0 (302)
방과후과정 미이용	48.0	52.0	100.0 (200)
$\chi^2(df)$	65.565(3)***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67, 169.
* $p < .05$, *** $p < .001$.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자녀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자녀가 아플 때’ 46.9%, ‘코로나 19로 인해 이용기관이 휴원한 경우’ 41.7%, ‘직장에서 연장근로 해야 할 때’ 39.2%, ‘부모가 아프거나 병원진료를 받아야 할 때’ 36.0% 순으로 조사됨.
- ◆ 자녀가 아파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은 맞벌이 가구에서 50.5% 약 절반이 경험하였으며, 이른 출근과 주말근로 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제기됨.

〈표 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상황(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아플 때	직장에서 연장근로를 해야 할 때	기관이 문을 열기 이전에 출근해야 할 때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기관이 휴원할 때	귀하 또는 배우자가 아프거나 병원진료가 있을 때	이용기관 자체 휴원	기타	(수)
전체	46.9	39.2	24.2	24.0	41.7	36.0	5.1	0.8	(1,6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50.5	47.8	28.6	26.3	43.2	27.7	5.5	0.7	(1,092)
홀벌이 가구	40.2	22.4	15.6	19.8	40.0	52.9	4.4	0.8	(505)
모두 근로 안함	26.9	7.7	7.7	11.5	11.5	61.5	0.0	3.8	(26)
$\chi^2(df)$	288.565(16)***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173-174.
*** $p < .001$.

- 이상의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병행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2%이고, 해당 서비스는 부모 및 친인척 72.9%, 민간 육아도우미 21.3%, 아이돌보미 16.5% 순으로 조사됨.
- ◆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16.0%로 홀벌이 가구 보다 낮아 서비스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자녀수가 많고,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 가구의 수요에 주목할 만함.

〈표 6〉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병행서비스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조부모 /친인척	민간 베이비시터	아이 돌보미	이웃	기타	(수)
전체	72.9	21.3	16.5	3.0	1.0	(668)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74.1	22.0	16.0	2.8	0.7	(576)
홀벌이 가구	65.9	17.0	20.5	4.5	1.1	(88)
모두 근로 안함	50.0	-	-	-	50.0	(4)
$\chi^2(df)$			101.903(10)***			
출생순위						
첫째	79.3	17.5	13.9	2.3	1.0	(309)
둘째	68.1	25.0	17.5	3.8	0.9	(320)
셋째 이상	61.5	20.5	28.2	2.6	2.6	(39)
$\chi^2(df)$			25.712(10)**			
연장보육/방과후과정 이용 여부						
연장보육 이용	64.8	31.8	25.8	3.9	0.4	(233)
연장보육 미이용	82.5	11.7	10.2	1.9	0.5	(206)
방과후과정 이용	69.7	20.6	13.9	4.2	2.4	(165)
방과후과정 미이용	79.7	15.6	9.4	0.0	1.6	(64)
$\chi^2(df)$			80.21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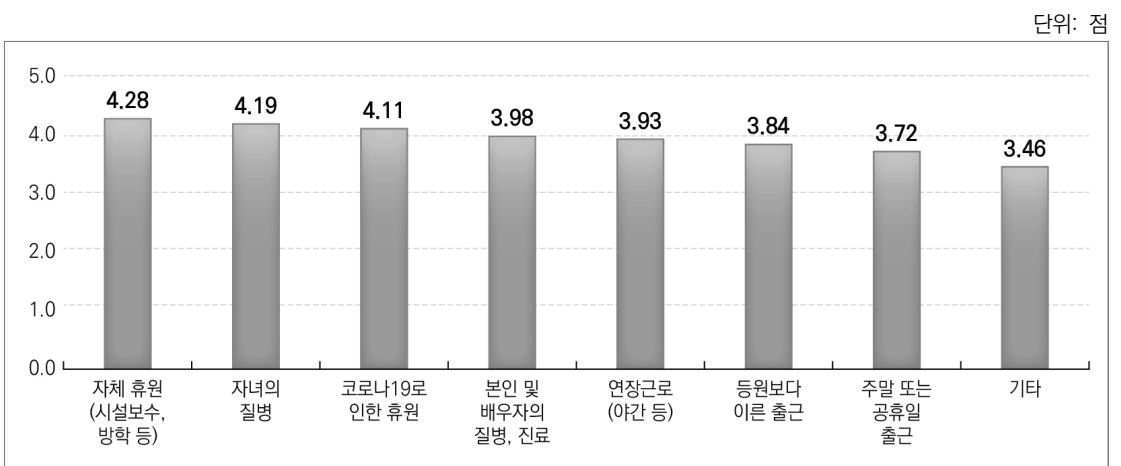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80, 181.
 ** $p < .01$, *** $p < .001$.

- 자녀돌봄의 공백이 우려되는 정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이용 중인 기관이 시설보수 등으로 자체적으로 휴원할 때’ 평균 4.28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가 아

플 때' 4.19점,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기관이 휴원할 때' 4.11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병원 진료' 3.98점, '직장에서 연장근로(야근 등)해야 할 때' 3.93점, '기관이 문 열기 전에 출근해야 할 때' 3.84점 순으로 조사됨.

- ◆ 맞벌이 가구 중에서 '매주 주말에 근로하는 가구'의 경우는 자녀가 아픈 경우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정도가 평균 4.52점(만점 5점)에 달하여 시급한 대응이 요구됨.

[그림 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의 우려 정도(5점 척도)



주1: 5점 평균은 '우려 정도 낮음' 1점 ~ '우려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주2: 기타는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자녀 육아로 바쁠 때', '배우자의 휴가', '아이의 하원이 빠른 경우' 등임.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05.

<표 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돌봄 공백 우려 정도: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별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주말근로 여부				F	(수)
		주말근로 안함	비정기적 주말근로	정기적 주말근로	매주 주말		
자녀가 아플 때	4.19	4.17	4.10	4.26	4.52	4.510**	(761)
직장에서 연장근로(야간 등)를 해야 할 때	3.93	3.80	3.97	3.91	4.14	2.215	(637)
기관이 문 열기 이전 직장에 출근해야 할 때	3.84	3.84	3.85	3.80	3.92	0.163	(393)
직장에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해야 할 때	3.72	3.41	3.78	3.69	3.92	2.772*	(390)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중인 기관이 휴원할 때	4.11	4.17	4.11	4.06	4.10	0.448	(677)

구분	전체	주말근로 여부				F	(수)
		주말근로 안함	비정기적 주말근로	정기적 주말근로	매주 주말		
본인 배우자가 아프거나 병원진료가 있을 때	3.98	3.96	3.98	4.04	4.06	0.297	(585)
이용 중인 기관이 기관 사정으로 자체 휴원할 때	4.28	4.29	4.34	4.18	4.23	0.219	(82)

주1: 비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비정기적 한명이 비정기적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며, 정기적 주말근로는 부모 중 한명이 정기적(당직 등)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이고, 매주 주말근로에는 부모 중 한명이 매주 주말근로하고, 한명이 정기적 주말근로하는 가구가 포함됨.

주2: 5점 평균은 '우려 정도 낮음' 1점 ~ '우려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07.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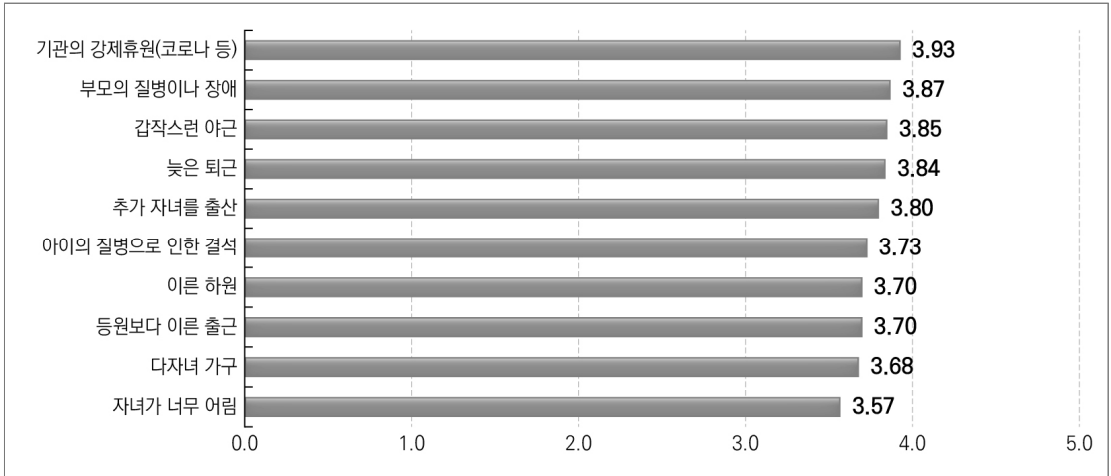
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필요도 인식과 지원요구

1) 돌봄 공백 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수요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 중인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의 필요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기관의 강제 휴원 평균 3.93점, 부모가 아픈 경우 3.87점, 직장에서 갑자기 야근해야 하는 경우 3.85점, 일상적으로 늦은 퇴근(19:30 이후) 3.84점, 추가자녀를 출산한 경우 3.80점 순으로 높은 수요를 보임.
- 일상적인 돌봄 틈새로 우려되는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를 살펴보면, 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의 요구가 높게 나타나므로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됨.
 - ◆ 출근시각의 경우는 어린이집 기본보육 이전시간대인 오전 7시 31분부터 오전 9시 이전의 요구가 높게 나타나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0시 이전의 요구도 높은 수준을 보임.
 - ◆ 퇴근시각의 경우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후 시간대인 오후 7시 31분부터 오후 8시까지의 요구가 평균 4.16점(만점 5점)으로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임.

[그림 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5점 척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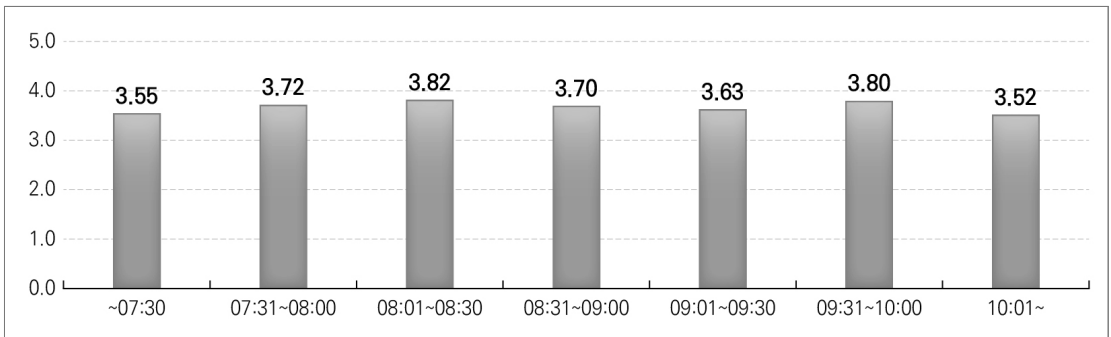


주: 5점 평균은 '필요도 낮음' 1점~'필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3.

[그림 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대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 출근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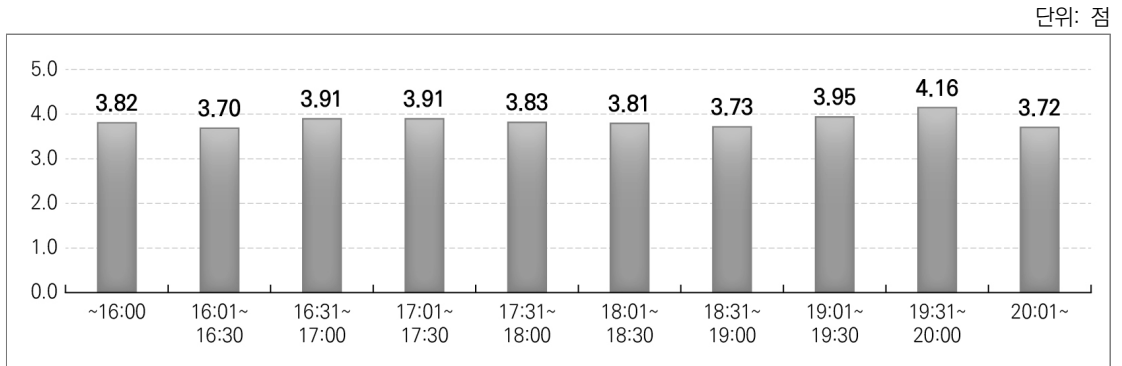
단위: 점



주: 5점 평균은 '필요도 낮음' 1점~'필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9.

[그림 6]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시간대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필요도: 퇴근시간



주: 5점 평균은 '필요도 낮음' 1점~'필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39.

- 자녀가 아파서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희망하는 돌봄 방식으로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60.0%(1+2순위 73.4%)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아이돌봄서비스는 1+2순위 35.9%로 조사됨.
- ◆ 자녀가 아픈 경우에 보육시설보다 아이돌보미를 더 선호하는 가구의 경우 해당 이유는 '아픈 자녀가 집에서 편하게 쉬 수 있어서'와 '낮선 기관에서 아이가 적응하기 힘들 거 같아서'가 각각 36.7%와 31.6%, 아픈 자녀를 등원시키는 것이 힘들어서 (19.0%) 등이 지목됨(유해미·박진아·엄지원, 2021: 222).

<표 8>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자녀가 아픈 경우 선호하는 돌봄 방식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휴가를 제공함	60.0	73.4
의료기관 내 부설 보육시설에서 돌봄	17.9	47.8
환아 전문 거점보육시설에서 돌봄	14.2	42.4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가 가정으로 파견되어 돌봄	7.9	35.9
기타	-	0.5
계(수)	100.0(1,623)	(1,623)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17.

- 야간 또는 주말에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8%로 높은 수요를 보이며, 주말근로를 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요를 보임.

〈표 9〉 긴급돌봄(야간/주말)시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맞벌이 가구의 근로특성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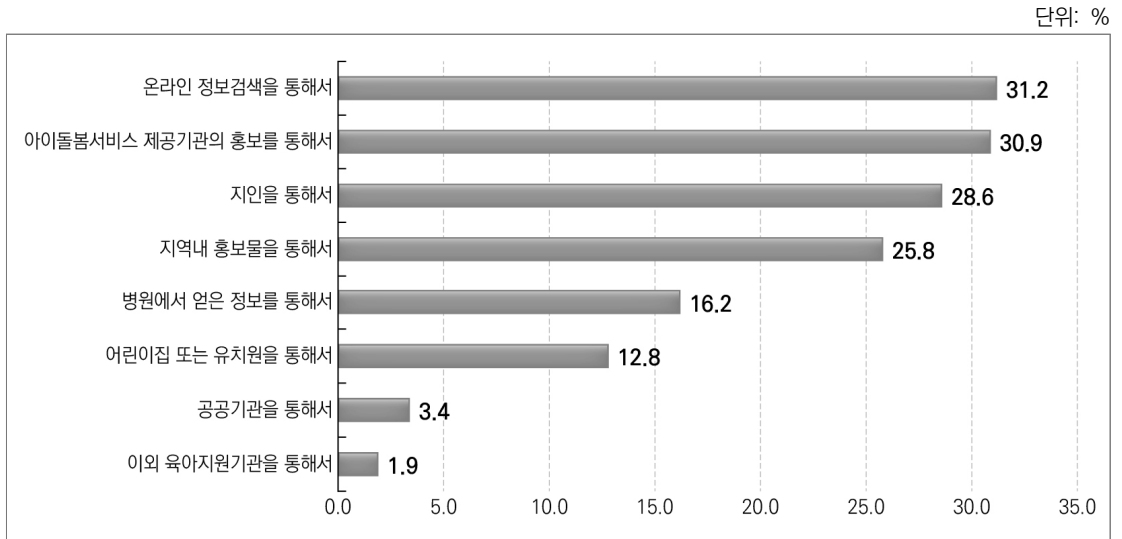
구분	야간 또는 주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여부		계(수)
	예	아니오	
전체	71.8	28.2	100.0 (1,623)
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71.7	28.3	100.0 (1,370)
전일제+시간제	75.2	24.8	100.0 (206)
시간제+시간제	66.7	33.3	100.0 (21)
$\chi^2(df)$	1.439(2)		
주말근로 여부			
모두 주말근로 안함	63.1	36.9	100.0 (485)
비정기적 주말근로	76.9	23.1	100.0 (623)
정기적 주말근로	74.6	25.4	100.0 (346)
매주 주말근로	75.5	24.5	100.0 (143)
$\chi^2(df)$	28.517(3)***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29.

2)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원요구

- 우선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있는 가구(1,077사례)에서 해당 서비스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12.8%에 그치므로 이들 기관을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

[그림 7]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경로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85.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 중이나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1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이용 중인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부모들에게 공지'가 39.4%(1+2순위 응답률 53.6%)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임.
- ◆ 그 다음으로는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동주민센터에 안내책자를 비치'하거나 '아이사랑포털 등 육아관련 포털 사이트 상 소개 자료에 탑재'가 공히 32.2%,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서비스 기관 내 안내책자 비치' 31.1%, '소아과 등 의료기관내 안내책자 비치' 30.8%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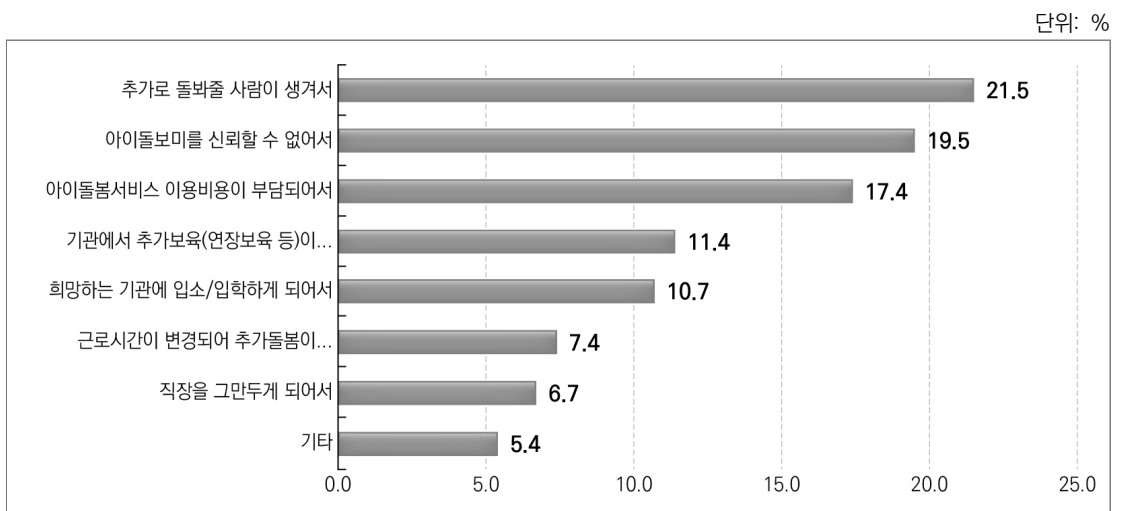
〈표 10〉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선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보수집 방식

구분	단위: %(명)	
	1순위	1+2순위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부모들에게 공지해 줌(오리엔테이션, 부모 간담회 등)	39.4	53.6
의료기관(소아과 등)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12.3	30.8
주민센터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16.9	32.2
산후조리원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8.9	19.2
육아 관련 서비스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안내 책자를 비치함	10.1	31.1
육아 관련 포털(아이사랑포털 등) 사이트에 소개 자료를 탑재함	12.1	32.2
기타	0.2	1.0
계(수)	100.0(1,623)	(1,623)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43.

- 과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2021년 8월 기준으로 이용하지 않는 가구의 미이용 이유로는 추가로 돌봐줄 사람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면, 아이돌보미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이 주요하게 지적되므로 관련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 과거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서 아이돌보미를 신뢰하지 못해서 19.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17.4%로 나타남.

[그림 8]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단 사유



자료: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90.

3

정책 제언

가. 선결과제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선결과제로는 이들 기관의 돌봄서비스 운영의 내실화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제시할 수 있음.
 - ◆ 어린이집 연장보육은 지리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병행해야 할 것임.
 - ◆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지역별로 운영기준과 지원기준의 지역적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모색하되, 해당 기준은 이용기관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린이집 연장보육의 운영기준을 고려해야함.
 - ◆ 영유아자녀의 긴급 돌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모 신뢰도 제고와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가 요구됨.

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방안

- 서비스 연계의 목표
 -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의 목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운영 되지 않거나 또는 긴급하게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할 수 있음.
 -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가구에 욕구 수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 기관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자녀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모색할만함.
- 서비스 연계의 우선지원 대상
 - ◆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보육의 보완이 그 목표이므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구 등을 선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에서 ‘자녀가 아픈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돌봄 공백의 상황으로 지목되므로 해당 가구의 ‘질병감염지원아동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에서 예외가 적용되므로(여성가족부, 2022: 5)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은 채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음.
- ◆ 가구특성별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할만한 가구로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 즉, 야간이나 주말 근로 맞벌이가구와 양육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가구(추가출산 직후 포함)를 대상으로 고려할만함.
 - 부모의 야간근로와 주말근로 등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서비스의 정보 접근성 제고

-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은 수준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및 연계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원아의 감염병이 우려될 시에는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22: 108),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의 해당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보육통합관리시스템 등 업무망을 통해 정기적으로 하달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함.
 - 긴급돌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시연계서비스’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상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의 다각화가 요구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연간 운영을 반영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영유아 자녀의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등), 의료기관, 유관 서비스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안내책자 배부, 임신·육아관련 사이트(보육포털 등)의 알림 공지 등도 추진함.

■ 서비스 연계의 기반 구축

- ◆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영유아보육·교육 기관을 담당하는 타 중앙부서의 협조를 요청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관한 규정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함.
- 보육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유아교육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의 경우는 시·도 및 시·군·구, 유치원의 경우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 사항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 서비스 신청 및 이용자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또는 연계하여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함.
 - 2020년부터 「정부24」에서는 돌봄시설의 검색과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19. 11. 11: 1), 해당 사이트에 ‘영유아 돌봄’ 검색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의 돌봄서비스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하여 ‘아이돌봄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함.

■ 서비스 연계 관련 규정의 보완 및 일괄 적용

- ◆ 아이돌봄서비스 전·후 아동인계의 안전관리 강화
 -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시작 전·후의 아동인계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인계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가 정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에 상호 확인된 아이돌보미로 적용대상을 보다 명료화해야 함.
 - 안전관리 관련 지침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직원으로부터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인계할 시는 아동의 보육활동과 일과 중 특이사항 등을 교사로 부터 전달받고, 이를 부모에 의무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함.
 - 아이돌보미는 부모가 지정한 대리자로서 사전에 지정되어 상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 일원화

-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사고 관리 사항이 상이하고, 보고 체계도 다르므로, 서비스 연계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 소재 등에 따라 일원화된 규정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에 관한 계획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아동인계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보고 및 처리과정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영유아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함.
 - ◆ 영유아 자녀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이 보편화되었으나, 이들 기관은 자녀가 아픈 경우 등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지니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방안을 제안함.
 - ◆ 특히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아픈 아동이 편안한 가정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하며, ‘일시연계 서비스’는 긴급보육 수요에 부응함.
- 부모의 근로시간 다양화 등 가구특성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의 측면에서 수요자의 형평성을 제고함.
 - ◆ 영유아를 둔 가구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운영시간은 전형적인 근로시간에 일하는 부모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이외 시간대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지니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전한 돌봄을 제공함.
 -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이용으로 충족될 수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는 곧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문헌 |

- 관계부처합동(2019. 11. 11). 보도자료: 우리 아이 방과 후 돌봄시설 신청, 「정부24」에서 한 번에 해결.
-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9. 10. 1). 보도자료: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 올해 약 3만여건 이용해 전년동기 대비 두배 증가.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